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 1

하와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놀룰루에서 다시 시애틀(Seattle)로 향하고 있습니다. 24 일에 돌아올 예정으로 출발한 18 일의 긴 여행입니다. 출발직전까지도 오쿠타마마치(奥多摩町)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일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보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허둥거리며 서둘러 준비를 하고는 공항에 도착, 비행기에 뛰어 올랐습니다.

차로 나리타(成田)를 향할때 길치인 저는 네비게이터(navigator)가 안내하는 대로 수도 고속도로로 진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차의 엠티램프(Empty-lamp)가 점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도중에 차가 멈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어떻게든 공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로비에서 서둘러 컴퓨터로 여행보험 신청을 마치고 탑승구로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제 일요일에 끝낸 '속편·유랑의 교회' 원고를 체크하고 그 후에 오쿠타마마치(奥多摩町) 동사무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나서 30 분 만에 여행가방에 짐을 채우고는 차로 달렸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혹시 늦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패턴 어쩌면 일종의 신종 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생 낫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월 6일 월요일 밤 9시)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내는 비교적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3 인분의 좌석을 침대로 삼고는 3 시간이나 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창 밖은 이미 호놀룰루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실로 산뜻한 아침 햇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시간으로는 한 밤 중인 2 시입니다. 하와이편 기내에는 젊은이나 서퍼(surfer)가 많았고 여기저기에서 관광투어 책을 뒤적이며 맛있는 요리나 관광지 등에 관한 화제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보니 이런 밝고 따스했던 나날도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정겹게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와이로 혼자서 여행오는 사람은 없겠지요,,,라며 혼자 멋대로 좀 빠지기도 했지만 넓은 하늘에서 만난 일출에 가슴이 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모처럼 하와이까지 왔으니 여행 그 자체를 에너지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정말 인생에는 여러종류의 여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진 재해 와중에 놓여진 자신을 보며, 또한 도쿄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며, 그리고 마치 부화한 거미가 사방으로 일제히 흩어지듯 뿔뿔이 흩어져 열심히

헤치며 살아남은 성도님들을 보며, 모두가 정말 힘껏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목사나 그들의 가족과 전도사님 그리고 어른에서 아이까지 또한 몸이 건강한 분이나 불편하신 분 모두들 아주 잘 참고 견디어왔습니다. 만약 저희 주변에 아무도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대신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그리고 지진재해 이후로 갑자기 쇠약해져서 좀 걱정이 되는 애견 파피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이 지진 재해를 겪으며 생명의 심지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란 원래 그 누군가를 위해 태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때로는 부딪치기도 하면서 각자 떠밀려간 그 자리에서 몸 하나 목숨 하나 부둥켜안고 줄타기와도 같은 여행을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도 머리를 싸매며 고민에 빠졌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것이 가슴 부듯합니다.

창 밖은 이미 밝아 아침 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몇번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 편 5 절)의 약속을 음미해봅니다.

(2월 6일 아침 7시반 호놀룰루 상공)

2월 14일(화) 호놀룰루 시간으로 지금은 밤 11시 반입니다. 저는 시애틀(Seattle)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탑승 입구를 통과하자 승무원이 바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좌석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좌석 전방이 넓고 편안한 클래스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바로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델타공항 카운터에서 친절하게도 짐의 중량 오버나 수화물검사 종렬스킵 등으로 융통성있게 저를 돌봐주신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전 호놀룰루에서 가진 지진재해 강연회 때 간단한 선물을 갖고 오셔서는 항공 회사에 근무한다고 인사를 나누신 분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번 하와이 강연 투어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면으로 모두가 제를 아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하루종일 '천국의 바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니카이' 해변을 잠깐

안내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해에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뽑혔다고 들었습니다만 과연 마치 유토피아와도 같은 바다였습니다.

멀리서 개가 뛰놀고 있었으며 개가 주인과 함께 헤엄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제게도 올 것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쳐지났습니다. 드디어 지진 재해가 완전히 지나가고 해변에 엮드려 가족과 개들과 한가롭게 지내는 그런 꿈같은 날이 오겠는지,,, 우두커니 선 채 부러운듯이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에게 퍼뜩 놀라고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두에게 미안한, 마치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드는 아이와도 같이 혼잡한 지진재해의 현실을 잊고 이 꿈과 같은 세계에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 심정을 떨었습니다. 하와이에 계신 여러분들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월 14 일 시애틀(Seattle)편에서)

시애틀(Seattle) 시간으로 심야 0 시입니다. 따뜻한 하와이에서 와보니 정말 시애틀은 춥습니다. 게다가 유일하게 한 장 가지고 온 겨울용 하이네크 셔츠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마 호놀룰루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와이의 알로하셔츠(aloha shirt) 는 대부분이 트렁크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호놀룰루에 한 리사이클 가게에서 시애틀(Seattle)용으로 산 잠바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진재해 이후로 헌옷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옷도 의외로 좋아서 어쩐지 신품을 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난 생활 중에 박스를 열어 헌옷을 서로 나누던 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도 그렇고 집회 강연회를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는 원고 체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월 11 일, 지진재해로부터 만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출판할 예정하고 있는 '속편·유랑의 교회'의 최종 준비에 쫓기고 있습니다. 사실 시애틀(Seattle)에서도 하와이에서도 틈이 날 때마다 제 원고에 몰두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급히 어제 한국에 막 보낸 한국 판 '유랑의 교회'의 머리말을 여기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월 17 일(금) 시애틀(Seattle)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

한국어 번역판 ‘유랑의 교회’ 머리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본 대 지진재해로부터 어느덧 일 년이 되어갑니다. 천 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일본의 동북지방 태평양 해안을 엄습해온 이 거대한 지진은 도로를 갈기 갈기 찢었고 산 사태를 일으켰으며 집들을 으깬습니다.

거둬서 숨들릴 틈도 주지않고 높이 15 미터의 대츠나미(大津波)가 밀려 들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한복판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후쿠시마(福島)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5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즉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삼시간에 교회는 폐쇄되고 가족은 우왕좌왕 흩어졌으며 도시를 덮은 사이렌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밤새도록 7 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와 원전폭발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치 SF 영화속의 세계와도 같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로 이 책은 엮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현실세계인 현대일본에서 일어난 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약 70 명으로 서로가 의지하며 버스, 트럭, 차 15 대에 나누어 타고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을 넘고 넘어 몇백킬로나 이동하여 양식을 확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이제까지 목숨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교회를 잃었고 돈도 당장 갈아입을 옷조차 없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기도와 눈물로 하늘을 우러러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의 지진재해로 인해 4 명의 성도님을 잃었습니다만 9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 이전에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 하루를 힘껏 견디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설마 자신의 인생에 이런 나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경험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약성서 당시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행을 계속하며 물자를 공유하고 있었던 정경이나 모세의 애굽 탈출등의 광경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생일이자 지진 재해가 있었던 3 월 11 일 그 날은 신학교 졸업식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도쿄부근에서 버스를 전세내서 후쿠시마현(福島縣)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갓난아기들 17 명을 산 위에 있는 대피소에서 구출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은 어쩌면 살아서는 못 돌아오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있는 후쿠시마현(福島縣)을 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모두가 목숨을 건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거짓말같은 진실 그리고 보도로는 전해지기 어려운 것을 육성으로 들려주듯이 이 책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대판 출애굽과도 같은 믿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궁핍히 여기시고 깊은 사랑으로 감쌌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셨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도쿄 가까운 곳에서 독일인 선교사가 경영하는 캠프장을 빌려 약 50 명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성도님들 약 150 명은 그 날 이후로 일본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신약 성서 시대의 디아스포라(Diaspora)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건물이나 조직 그리고 활동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 3 월에 집을 잃은 연세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새 여행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또한 3 년전에 신축한 새교회를 포함한 4 채의 교회가 방사능오염 때문에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출입금지가 된 고향에서 남쪽으로 약 60 킬로 지점에 5 번째의 새교회를 올해 9 월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교회는 박해뿐만 아니라 지진재해에도 강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얻어맞아도 뿔뿔이 흩뜨려도 되살아난다는 것을,,,

지금까지 격동의 지진재해 체험을 담은 이 책을 이번에 한국에서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외톨이가 아닙니다. 바다 너머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일본의 한 시골교회가 돌연 지진재해를 당해서 얻어맞고 뿔뿔이 흩뜨려져 울며쓰러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다시 약한 무릎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체험해왔는지가 낱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지진 재해 직후로부터 시작된 일기와 그 후 계속 피난해온 성도님의 신실한 간증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한국 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국 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온세계 분들의 온정과 도움을 받아 온 저희들은 비록 많은 것은 잃어버렸지만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 년 2 월 14 일(화) 미국 시애틀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